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권유경\*\* · 정소희\*\*\*

### 초 록

이 연구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3개교와 경상북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6학년 남녀 아동 총 38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이고,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일수록 민주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모-자녀 간 대화시간이 길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의 경우 여학생이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최종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모의 학력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의 탄력성, 어머니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행동

\* 이 연구는 권유경의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과량새드림지역아동센터, 주저자.

\*\*\*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jjid@hanmail.net

## I. 문제제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위기나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의 정신건강분야의 연구나 긍정심리학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나 역경은 대단히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위기나 역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를 통해 우리는 심리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워나간다.

아동학대, 부모의 정신병리, 부모의 이혼, 극심한 빈곤, 성폭력 등 아동발달에 있어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기나 역경을 경험한 아동 모두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부적응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으며 또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탄력성은 이처럼 위협이나 역경 속에서도 놀랍게도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아동(즉, 탄력적인 아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달되어온 개념으로(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연령에 적합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환경조건 즉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이루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한다(Goldstein & Brooks, 2005).

지금까지의 탄력성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보호요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아동의 개인적 특질인 개인요인, 아동에게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가족요인, 가족 이외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지역 사회요인 등이다(Werner & Johnson, 1999). 대규모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활동성, 사교성, 따뜻하고 상냥한 기질, 자율성, 평균이상의 지능, 긍정적 자기개념, 충동조절, 준비성, 신뢰 등이 있고, 가족적 보호요인으로는 소가족(4인 미만의 자녀), 어머니의 유능성, 주 양육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지지적 조부모, 지지적 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유능한 또래친구, 지지적 교사, 성공적 학교경험, 멘토, 친사회적 단체(청소년클럽, 종교단체 등)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보호요인들은 안정되고 안전한 가정에 사는 ‘저위험’ 아동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요인들이지만 역경 수준이 높은 ‘고위험’ 아동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역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erner, 2005). 이러한 보호요인 중 아동의 발달과 탄력성에 특히 중요한 요인은 가족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

위보다 부모-자녀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관여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이 높고, 정서조절 및 충동조절을 더 잘 하고,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정소희, 2011; 유양, 박인숙, 문영숙, 2010; Nada-Raja, McGee & Stanton, 1992; Jacobson & Crockett, 2000; 정병삼, 2010; Bamaca, Umana-Taylor, Shin & Alvaro, 2005), 자아존중감 및 자아효능감, 정서조절능력이 높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좌절과 실패를 더 잘 인내하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능력 즉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Werner, 2005). 또한 아동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좋은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이 또래 및 교사와 애착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학교에도 더 잘 적응하는데(정소희, 권유경, 2010; 이귀숙, 정현희, 2006) 유능한 또래친구나 지지적인 교사, 성공적인 학교생활 경험은 고위험아동들이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족외적 자원인 것이다(Werner, 2005).

이런 이유로 인해 아동의 탄력성을 이해할 때 우선적으로 부모양육태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국내에서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권은경, 2008; 권지은, 2003; 신윤자, 2005; 신정희, 2007; 정미현, 2002; 조계연, 2006)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적특질로서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뿐 부모양육행동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질로서의 탄력성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모양육태도가 아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들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한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아동의 성별, 기질 등과 같은 아동이 가진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가구의 소득, 부모의 학력 수준, 부부갈등 등과 같은 가족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정소희, 2007a, 2007b)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등과 같은 개인요인, 모의 학력수준, 가정경제수준 등과 같은 가족요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1) 본 연구에서 아동기 후기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시기의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기의 탄력성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sten, 2001; Werner, 2005; Werner & Smith, 1992).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탄력성 또한 아동의 성별, 지능 등과 같은 개인요인과 부모의 학력수준 및 가정경제수준, 부모양육태도 등의 가족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이용준, 2004; Wright & Masten, 2005)고 알려진 만큼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요인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개인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 및 가족특성(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과 부모양육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개인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 및 가족특성(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탄력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개인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적), 가족특성(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탄력성의 개념 및 보호요인

부모의 사망, 정신질환, 아동기 학대, 장기간의 빈곤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 아동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발달된 탄력성(resilience)은 첫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둘째, 측정하기에 쉽지 않아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기도 하여 개념이나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Luthar et al., 2000). 그러나 지금까지 탄력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탄력성을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율성이나 높은 자아존중감과 같이 탄력적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 개념은 Block와 Block(1980)이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상황에서 스

트레스의 영향을 차단하거나 적게 받으며 자아를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Block와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해 사용하고 있는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는 탄력성을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등 5가지 심리적 특성을 하위요인으로 두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진행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 중 다수(권은경, 2008; 권지은, 2003; 신윤자, 2005; 김영혜, 2009; 이신영, 정현희, 2010)가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력성을 개인의 특질로 정의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Wright와 Masten(2005)의 주장처럼 탄력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하면 잠정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아동을 ‘올바른 그 무엇’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역경을 극복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많은 아동이 겪고 있는 압도적인 사회적 스트레스원과 역경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적 탄력성에서 맥락(환경)이 담당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Wright & Masten, 2005).

탄력성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개인의 특질로서의 탄력성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고위험상황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이루어내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진화되면서 탄력성이 단지 아동의 개인적 특질만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종종 비롯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확산된 것으로(Luthar et al., 2000)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자 오늘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탄력성은 아동의 개인적 속성과, 가족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역동적인 적응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며 아동들이 역경을 경험하고도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Luthar, 1996)<sup>2)</sup>. 사회사업의 주요관점이 ‘환경(상황) 속의 인간’이고 탄력성이 고위험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아동의 연구에서 발달되어온 개념인 만큼 탄력성을 개인적 특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상황에서도 개인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이

2) Masten(1994)은 탄력성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하는 것은 ‘resilience’로, 개인의 속성으로서의 탄력성은 ‘resiliency’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경 속에서의 긍정적 적응은 탄력성으로, 개인의 특질 혹은 속성(trait)으로서의 탄력성은 자아탄력성이라고 구분한다.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적응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성별, 지능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의 학력과 가정경제수준 등의 가족요인이 있다.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적 생활사건에 더 잘 적응하고 유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 및 발달단계,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성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이용준, 2004; Werner, 2005)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지능 또한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내적 특성 중의 하나인데 높은 지적 능력은 스트레스를 주는 외적 환경이나 위험한 역경 생활사건에서 보다 나은 대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이용준, 2004). 또한 지능과 관련 있는 학업적 유능감(혹은 학업성취)이 높은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건강문제를 덜 겪고, 성인기에 이르러 더 활동적이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2005).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수용, 지지, 격려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보다 방임적 양육행동이나 가혹한 양육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으며 빈곤하거나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은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학업성적도 떨어진다(정소희, 2007b; Brady & Matthews, 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는 크게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 아동의 발달에 더 크고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의 학력수준(특히 모의 학력수준)이다(정소희, 2009). 모의 학력수준이 소득 수준보다 아동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어머니가 아동들과 일상적으로 더 긴밀히 상호작용하고 돌보며 정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 2.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학교생활 등 사회적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력성을 증진하는 보호요인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질 높은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아동발달의 위험요인이 높을 때 특히 더 커진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감독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모감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빈곤하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아동의 인지적 수준 및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계에 있고(Baldwin, Baldwin & Cole, 1990; Gonzales, Cauce, Friedman & Mason, 1996), 지역사회SES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감독과 아동의 외현화문제와의 부적 상관이 더 크다(Beyers, Bates, Pettit & Dodge, 2003)는 연구결과를 부모감독 및 관여가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는데 안전한 지역의 경우 부모의 감독 및 통제가 낮은 아동들이 비행수준이 더 낮았다(Coley & Hoffman, 1996)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SES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감독의 보호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는 서구에서 진행된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결과에서 많이 증명되었다. 카우아이종단연구(The Kauai Longitudinal Study)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만 2세 때 4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예를 들어 출생 시 문제점, 모의 낮은 학력, 빈곤 등)을 가졌던 고위험군 아동들 중에서 10세와 18세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행동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으며 유능성을 보이는 탄력적인 집단은 행동문제를 노출하는 부적응집단에 비해 어린 시절 좋은 양육행동을 경험하였고 영아기 때에도 순한 기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Masten, 2001; Werner, 2005; Werner & Smith, 1992).

미네소타 부모-자녀프로젝트도 일관되고 지지적인 양육이 아동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종단연구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생후 2년 동안 지지적인 보살핌을 받은 아동이 덜 지지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보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의 저조한 적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보였으며, 아동기 중기에 부적응했으나 청소년

기에 유능성으로 긍정적 전환을 보였던 아동은 초기에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Yates, Egeland & Sroufe, 2003; Werner, 2005에서 재인용).

로체스터종단연구결과도 양육행동이 아동의 탄력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사망, 질병, 이혼, 빈곤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stress-affected)과 스트레스에 탄력적인 집단(stress-resilient)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결과 부모양육행동의 질이 높은 아동들이 더 스트레스에 탄력적인(즉,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yman, Cowen, Work & Parker, 1991; Masten, 2001). 즉,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즉, 고위험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적응력이 낮은 아동들에 비하여 영유아기 때 순한 기질을 가졌고 주양육자와의 분리경험이 적었으며, 유아기와 학령기에 친밀하고 상호작용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에 탄력적인 아동의 부모는 학령기때에는 보다 긍정적이고 일관된 훈육을 하고, 아동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고, 남편이나 확대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lmer, Cowen & Wyman, 2001; Wyman et al., 1991.)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용준(2004)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역경이 높음에도 높은 유능성을 보이는 탄력적 집단과 역경이 낮으면서 높은 유능성을 보이는 적응집단, 역경 수준이 높고 유능성이 떨어지는 부적응집단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예측과는 달리 탄력적 집단의 부모들이 적응적 집단의 부모보다 거부-제재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타의 많은 선행연구(Masten, 2001; Werner, 2005; Werner & Smith, 1992; Kilmer, Cowen & Wyman, 2001)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3개교와 경상북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6학년 남녀 아동 총 62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수거된 610부(98.3%)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확실한 1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양육자를 '어머니'로 응답한 아동의 설문지 388부(63%)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

##### 1) 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력성 척도는 국제탄력성 기구(International Resilience Project)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것으로 총 15문항으로 되어있으며(Grotberg, 1997) '전혀 아니다', '대부분 아니다',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다' 등의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에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때 칭찬 받는다',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유머감각이 있다', '나는 과제에 집중하여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등이 있는데 문항의 내용이 탄력성 그 자체라기 보다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내적자원들(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낙관성 등)과 외적 자원들(가족 및 가족이외의 사람들로 부터 받는 지지 등)을 총칭한 것으로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2) 부모양육태도

오기선(1965)의 ‘아버이 자녀 관계 진단 검사’를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와 박현선(1997)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척도화하여 표준화시킨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주의형, 민주형 그리고 맹종형(허용형)<sup>3)</sup>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위주의형은 자녀의 의견과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지시와 통제를 주로 사용하며 부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체벌이나 욕설 등의 가혹한 훈육방법을 사용한다. 민주형은 자녀의 의사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허용형의 경우 자녀의 욕구나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허용하는 특성을 보이며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자녀의 의사가 우선시하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적절한 지도, 감독이 부족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에서 재인용).

이시형 등(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Cronbach의  $\alpha$ 는 .82, 민주적 양육태도는 .74, 허용형 양육태도는 .4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5(권위주의형), .78(민주형), .52(허용형)로 나타났다<sup>4)</sup>.

## 3) 기타 개인변수 및 가족변수

아동의 개인특성 중 성별은 더미변수(남자=1)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학년은 원자료값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적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원자료에는 ‘아주 못하는 편이다’에서 ‘매우 잘 한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못한다’, ‘보통’, ‘잘한다’ 등 세 분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가족특성 중 모의 학력의 경우 원자료에는 ‘무학’에서 ‘대학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6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나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3분류로(중졸이하, 고졸, 전

3) 이시형(1997) 척도에서 ‘맹종형’이라고 명명한 양육태도는 Baumrind(1967)가 허용형 양육태도(permissive parenting)으로 지칭한 것이며 Baumrind(1967) 이래 많은 연구에서 허용형 혹은 방임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하에서는 허용형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4) 허용적 양육태도의 경우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신뢰도가 낮아 결과 해석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문대졸 이상)구분하였고, 경제적 수준 또한 원자료에는 ‘아주 어렵다’에서 ‘매우 넉넉하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최종분석에서는 3분류(어려움, 보통, 넉넉)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자녀대화시간은 ‘30분 미만’,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등 4분류로 구분하여 서열변수 식으로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탄력성을 조사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 남자가 50.5%이고, 여자가 49.5%로 나타나 거의 반반 수준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4학년 36.3%, 5학년 32.8%, 6학년 30.9%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보통이 55.2%로 가장 많았고, 잘하는 편 35.5%, 못하는 편 9.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대화시간의 경우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33.5%), 30분-1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5.8%로 그 다음 순이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범주		빈도	범주		빈도
성별	남자	196(50.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6(53.1)
	여자	192(49.5)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120(30.9) 57(14.7)
나이	4학년	141(36.3)	경제적 수준	어려운편이다	16(4.1)
	5학년	127(32.8)		보통이다	217(55.9)
	6학년	120(30.9)		넉넉한편이다	154(39.7)
성적	못하는 편	36(9.3)	부모-자녀 대화시간	30분미만	55(14.2)
	보통	214(55.2)		30분-1시간	100(25.8)
	잘하는 편	138(35.5)		1시간-2시간	90(23.2)
2시간이상				130(33.5)	

## 2.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모의 양육태도

표 2는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부모양육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표이다. 먼저 아동 개인적 특성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민주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를 더 높게 보고 하였고, 성적이 '상'인 아동들이 성적이 '중'이나 '하'로 응답한 아동들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민주적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성적이 '하'인 아동들이 성적이 '상'인 아동들에 비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여학생이고, 성적이 높은 아동들일수록 민주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성적인 낮은 아동들일수록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모의 양육태도

변인	범주	구 분		
		민주적 양육태도(SD)	권위주의적 양육태도(SD)	허용적 양육태도(SD)
성별	남자	2.34(.38)	1.46(.37)	1.60(.38)
	여자	2.42(.39)	1.49(.37)	1.67(.36)
	t값	-2.71*	-.83	-2.04*
학년	4학년 (a)	2.40(.36)	1.43(.35)	1.59(.35)
	5학년 (b)	2.35(.41)	1.51(.43)	1.62(.38)
	6학년 (c)	2.39(.39)	1.49(.31)	1.70(.38)
	F	-.38	1.48	2.88
성적	하 (a)	2.20(.39)	1.64(.38)	1.67(.41)
	중 (b)	2.34(.37)	1.48(.36)	1.64(.37)
	상 (c)	2.49(.37)	1.42(.37)	1.62(.35)
	F값	11.06***	5.08**	.31
	사후검증결과	a, b<c	c<a	
모의 학력	고졸이하(a)	2.33(.37)	1.50(.36)	1.63(.36)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b)	2.44(.39)	1.46(.36)	1.62(.37)
	대학원이상(c)	2.46(.37)	1.42(.41)	1.70(.39)
	F값	4.22*	1.20	1.08
	사후검증결과	a<b		
경제적 수준	어려움 (a)	2.10(.46)	1.61(.48)	1.47(.31)
	보통 (b)	2.35(.36)	1.51(.38)	1.63(.36)
	넉넉함(c)	2.45(.31)	1.42(.36)	1.66(.38)
	F값	7.59***	3.23*	1.96
	사후검증결과	a, b<c		
대화 시간	30분미만 (a)	2.12(.44)	1.60(.44)	1.52(.35)
	30분-1시간 (b)	2.30(.36)	1.55(.40)	1.61(.35)
	1시간-2시간 (c)	2.44(.34)	1.44(.33)	1.68(.35)
	2시간이상 (d)	2.50(.34)	1.42(.32)	1.68(.35)
	F값	15.47***	4.48**	2.86*
	사후검증결과	a<b<d, a<c	d<a	

\* $p<.05$  \*\* $p<.01$  \*\*\* $p<.001$

가족의 특성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의 학력수준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인 아동들이 고졸이하인 아동들보다 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넉넉하다고 보고한 아동들이 경제수준이 보통이하인 아동에 비해 민주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집단이 민주적 양육태도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가장 적게 경험한 반면 대화시간이 하루에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민주적 양육태도는 가장 적게,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화시간이 짧을수록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개인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탄력성이 더 높고, 성적이 높은 집단이 성적이 ‘중’이거나 ‘하’인 집단보다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의 경우 학년 간 탄력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탄력성이 높고, 경제수준이 넉넉하다고 보고한 아동들이 보통이거나 어렵다고 보고한 아동들보다 탄력성이 더 높았으며,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집단이 30분미만이거나 1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아동들일수록 탄력성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과 탄력성

변인	범주	탄력성 평균(SD)	변인	범주	탄력성 평균(SD)
성별	남자	3.33(.76)	모의 학력	고졸이하(a)	3.26(.73)
	여자	3.53(.75)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b)	3.62(.74)
				대학원이상(c)	3.67(.77)
		t값		-2.47*	F값
			사후검증결과	a<b,c	
학년	4학년 (a)	3.45(.69)	경제적 수준	어려움 (a)	2.92(1.01)
	5학년 (b)	3.40(.78)		보통 (b)	3.33(.71)
	6학년 (c)	3.43(.82)		넉넉함(c)	3.62(.75)
		F값		.16	사후검증결과
성적	하 (a)	3.07(.92)	대화 시간	30분미만 (a)	3.01(.81)
	중 (b)	3.26(.71)		30분-1시간 (b)	3.30(.71)
	상 (c)	3.77(.67)		1시간-2시간 (c)	3.46(.76)
		F값		25.25***	2시간이상 (d)
	사후검증결과	a,b<c		F값	10.97***

\* $p < .05$  \*\* $p < .01$  \*\*\* $p < .001$

#### 4.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표 4는 아동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먼저 모델1은 아동의 개인특성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모형으로 모델1을 보면 성적이 탄력성과 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델2는 모델1에다 가족특성을 추가한 모델로 여전히 성적이 탄력성과 가장 관련이 높으며 모의 학력과 경제수준 또한 탄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3은 모델2에다 양육태도를 추가한 모형으로 모델3에서는 성적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델2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델3에 투입한 전체변수 중 가장 탄력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 변수는 민주적 양육

태도(.45)로 나타났고, 양육태도를 투입한 모델3이 모델2에 비해 설명력(R<sup>2</sup>=41%)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 부모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아동의 탄력성에는 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가족구조적 요인보다는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과정적 요인(혹은 상호작용 요인)이 더 중요하며 특히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양육태도와 탄력성과의 관계

	모델1	모델2	모델3
<u>개인특성</u>			
성별(남자=1)	-.12**	-.13***	-.09*
학년	.01	.02	.00
성적	.38***	.33***	.22***
<u>가족특성</u>			
모의 학력		.16***	.11**
경제적 수준		.11**	.03
<u>양육태도</u>			
민주적양육태도			.45***
권위주의적양육태도			-.03
허용적양육태도			.05
<i>R</i> <sup>2</sup>	.16	.21	.41

\**p*<.05 \*\**p*<.01 \*\*\**p*<.001

##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구, 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3개교와 경상북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6학년 남녀 아동 총 38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성적이 높은 아동들이 민주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한 반면 성적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권위적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과의 관계에서는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화시간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권위적 양육태도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애착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하며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긍정적 양육행동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정소희, 2007a, 2007b)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여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화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탄력성이 높으며, 높은 지능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보호요인이라는 이전의 연구결과(이용준, 2004; Werner,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구의 빈곤은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은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전 연구(Wright & Masten, 2005)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탄력성은 별 관계가 없다는 이용준(2004)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인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단연구를 비롯하여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탄력성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후속연구들이 더 많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개인 및 가족특성, 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적, 모의 학력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에 있어서 부모의 질 높은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안태용과 심혜숙(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서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종단연구의 결과(Wyman et al., 1991; Masten, 2001; Kilmer et al., 2001)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동의 탄력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학업성적 등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보다도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적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아동들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아동들이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학업성적이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 아동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적이 낮은 집단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학업성적으로 많은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풍토 속에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이 특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지나칠 경우 왕따나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등의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가정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어머니 자신이 좋은 양육태도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부정적 양육방식이 세대 간 전수될 수 있음에 따라 긍정적 양육방법 및 바람직한 대화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

특성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둘째,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적 연구가 축적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실증적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탄력성과 탄력성을 증진하는 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유형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양육태도가 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력성척도는 탄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도구가 아니라 탄력성 개념에 대한 대리변수(proxy)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탄력성 척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탄력성의 보호요인들(즉,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보호요인들이 많은 아동들이 더 탄력적이며 이런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탄력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력성 척도가 아동의 탄력성 그 자체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한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의 수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요인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아동의 발달을 연구한 종단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행동과 탄력성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인 해석을 하기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설계를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은경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혜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6(1), 25-45.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정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태용, 심혜숙 (200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모애착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0(4), 2383-2396.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양, 박인숙, 문영숙 (2010).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중국 아동의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6(4), 335-343.
- 이귀숙, 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가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17.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 (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보고 제 97-7호).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이신영, 정현희 (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행동: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7(6), 147-170.
- 이용준 (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현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소희 (2007a). **청소년기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이 중단적 상호작용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소희 (2007b).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소희 (2009). 양육행동과 비행이 발달취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 349-376.
- 정소희 (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 165-186.
- 정소희, 권유경 (2010). 지역사회SES,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공격성 지역사회SES,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공격성. **사회복지연구**, 41(3), 379-402.
- 조계연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건강성)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집.
- Baldwin, A. L., Baldwin, C., & Cole, R. E. (1990). Stress-resistant families and stress-resistant children.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pp.257-2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Bámaca, M. Y., Umaña-Taylor, A. J., Shin, N., & Alfaro, E. A. (2005). Latino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s and self-esteem: Examining the role of neighborhood risk. *Family Relations*, 54, 621-632.
- Beyers, J. M., Bates, J. E., Pettit, G. S., & Dodge, K. A. (2003). Neighborhood structure, parenting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youths' externalizing behaviors: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35-53.
-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ady, S. S., & Matthews, K. A. (200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ethnicity on adolescents' exposure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7*(7), 575-583.
- Coley, R. L., & Hoffman, L. W. (1996). Relations of parental supervision and monitoring to children's functioning in various contexts: Moderating effects of families and neighborhood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1-68.
- Goldstein, S., & Brooks, R. B. (2005). 왜 적응유연성을 연구하는가?.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pp.21-41). 신현숙 (역). 서울: 학지사. (2009년 출판)
- Gonzales, N. A., Cauce, A. M., Friedman, R. J., & Mason, C. A. (1996). Family, peer,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One-year prospe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365-387.
- Grotberg, E. (1997). The international resilience project. In M. John (Ed.), *A charge against Society: The child's right to protection*. London: Jessica Kingsley.
- Jacobson, K. C., & Crockett, L. J. (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97.
- Kilmer, R. P., Cowen, E. L., & Wyman, P. A. (2001). A micro analysis of developmental, parenting, and family milieu variables that differentiate stress resilient and stress affected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391-416.
- Luthar, S. S. (1996). *Resilience: A construct of value?*.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1994).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In M. C. Wang, & E. W. Gordon (Eds.),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pp. 3-25). Erlbaum; Hillsdale, NJ: 1994.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sten, A. S., & Garmezy, N. (1985). Risk,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New York: Plenum.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43-169.
- Nada-Raja,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1-485.
- Naglieri, J. S., & LeBuffe, P. A. (2005). 아동기 적응유연성의 측정.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pp.157-179). 신현숙 (역). 서울: 학지사. (2009년 출판)
- Werner, E. E. (2005). 대규모 종단연구에서 얻은 교훈.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pp.181-202). 신현숙 (역). 서울 : 학지사. (2009년 출판)
- Werner, E. E., & Smith, R.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Werner, E. E., & Johnson, J. L. (1999). Can we apply resilience?. In M. Glantz & J. L. Johnson (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pp.259-268). New York: Plenum Press.
- Wright, M. O., & Masten, A. S. (2005). 발달에서 적응유연성의 과정. In S. Goldstein, & R. B. Brooks (Eds.),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pp.43-74).

신현숙 (역). 서울: 학지사. (2009년 출판)

- Wyman, P. A., Cowen, E. L., Work, W. C., Hoyt-Meyers, L., Magnus, K. B., & Fagen, D. B. (1999). Caregiving and developmental factors differentiating young at-risk urban children showing resilient versus stress-affected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Development, 70*.
- Wyman, P. A., Cowen, E. L., Work, W. C., & Parker, G. R. (1991). Developmental and family milieu interview correlates of resilience in urban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major life-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405-426.
- Yates, T. M., Egeland, B., & Sroufe, L. A. (2003). Rethinking resilience: A developmental process perspective. In S. Luthar (Ed.),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pp. 243-26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Mother's parenting styles and the resilience of children

Kwon, Yoo-Kyong\* · Jeong, S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other's parenting styles and the resilience of children differ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and family factor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a mother's parenting styles on their children's resilience. The subjects comprised 388 elementary students(196 boys and 192 girls, from the 4th graders to the 6th grad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democratic parenting styles of moth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gender of the child, academic grades, mo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nd time spent with their mother. (2) Children's resili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gender of the child, academic grades, mo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nd time spent with their mother. (3) Among these variables, the effects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s of the mother on their children's resilience was observed to be the most powerful variabl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theory, research,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Mother's parenting style, children's resilience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1월 5일, 심사완료일 : 11월 15일

---

\* Blue Bird Dream Children's Center

\*\* Daegu University